

돌아와 보는 밤·슬픔이 나를 깨운다 (윤동주/황인숙)

(가) 시에서 방은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를 분리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리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내면과 교류하기 위한 조건이 되기에, 방은 삶을 대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공간이 된다.

(가)는 두 시를 읽는 틀을 미리 제시하는 이론 글. ①분리 → ②내면 응시·교류 → ③현실 수용 또는 내적 성숙 → ④창을 통한 제한적 연결, 이 네 축이 45번 선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

45번 전 선지 대조표: 각 선지가 (가)의 어느 축을 끌어 쓰는지부터 표시하고, 그 축이 해당 시의 구절과 맞물리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풀 것.

(나)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웁니다. 불을 켜 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롭음 일입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 옅기에-

불을 끄는 행위는 '낮'=세상과의 단절 선언. 방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세상에서 물러나는 일이 된다.

'웁니다' 형태의 경어체 종결로 조용히 고백하는 어조를 만든다.

45번 ① 근거의 앞부분: '방'이 외부 세계로부터 개인이 분리되는 공간임을 보여 주는 구절.

(나)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들여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 안과 같이 어두워 꼭 세상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비 속에 젖어 있사웁니다.

창밖도 방 안처럼 어둡고, 지나온 길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다 —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

'창'은 방을 외부와 제한적으로 이어 주는 통로. (가)가 말한 '창을 통한 제한적 연결'의 실례다.

45번 ④ 함정의 절반: 창밖을 내다보는 것은 세상을 인식하는 행위이지 '외부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가 아니다. ①(제한적 연결)과 ④(외부 지향)를 갈라 읽는 것이 관건.

(나) 하루의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④ 눈을 감으면 마음 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웁니다.

눈을 감자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 가고, 내면의 소리가 들리며 사상이 무르익는다.

추상적인 '사상'을 '능금'이라는 구체적 사물의 익어 감에 빗대 내적 성숙을 형상화한다.

44번 정답 근거(③ 앞부분): ③은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옮겨가게 된 기점'. 2연에서 방은 이미 어두우므로 '방을 어둡게 하려는 노력'(②)은 성립하지 않고, 무력감을 '극복해 낸 상태'(①)도 아니다. 45번 ②·⑤의 근거이기도 하다.

(다) 매일 새벽 나를 깨우러 오는 슬픔은 /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 / ⑥ 슬픔은 분명 과로하고 있다.

깨우러 오는 시간이 계속 앞당겨진다 = 슬픔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과로'는 그 정도를 재는 표현.

감정인 '슬픔'을 깨우고 노래하고 일하는 행위의 주체로 세운 의인화. 화자는 자기 감정을 하나의 대상처럼 바라본다.

43번 정답 근거(②)이자 44번 정답의 뒷부분(③): ⑥은 화자의 슬픔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 ③번 선지의 '상상 속 대상·경외감'은 본문과 무관한 함정.

(다) 슬픔은 나를 일으키고 / 창문을 열고 담요를 정리한다. / 슬픔은 책을 펼쳐주고, 전화를 받아주고, 세숫물을 데워준다. / 그리고 조심스레 / 식사를 하시지 않겠냐고 권한다.

깨우기·정리·시중·권유까지, 하루 일과 전체를 슬픔이 대신한다. 화자는 슬픔이 차려 준 밥을 먹고 싶지 않다고만 말할 뿐 물리치지는 못한다.

구체적 행위를 나열해 추상적 감정에 몸을 입히는 방식. 슬픔이 일상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눈에 보이게 만든다.

43번 ② 보강 근거. 44번 ②의 '슬픔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진술 자체는 이 대목과 맞지만, 짝이 되는 ③ 해석이 어긋나 오답이 되는 구조에 주의.

(다) 내가 외출을 할 때도 따라나서는 슬픔이 / 어느 결엔가 눈에 띄지 않기도 하지만 / 내 방을 향하여 한발 한발 돌아갈 때 / 나는 그곳에서 슬픔이 / 방안 가득히 웅크리고 곱다랗게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밖에서는 잠시 보이지 않아도 방에는 슬픔이 남아 기다린다.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잠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임을 화자 스스로 '안다'.

45번 ③ 근거(슬픔과 공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의 공간)이자, 정답 ④ 함정의 나머지 절반: 밖에서 슬픔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안심'으로 읽으면 오독 — 화자는 돌아갈 곳에 슬픔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작품 정리

갈래	(가) 시론(비평문) / (나)·(다) 현대시(자유시, 서정시)
성격	(나) 성찰적, 고백적 / (다) 관조적, 일상적
작가	(나) 윤동주 / (다) 황인숙
시점/화자	(나) 밤에 좁은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는 '나' / (다) 매일 새벽 슬픔에게 깨워지는 '나'
주제	방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응시와 성숙(나), 슬픔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수용(다)

특징

- (나) '-읍니다'의 경어체 종결로 나직한 고백의 어조를 형성함
- (나) 불을 끄는 행위와 창밖 응시를 통해 세상과의 단절·제한적 연결을 함께 드러냄
- (나) 추상적인 '사상'을 '능금'에 빗대 내적 성숙을 구체화함
- (다) 감정인 '슬픔'을 의인화해 행위의 주체로 세움
- (다) 깨우기·정리·시중 등 구체적 행위를 나열해 슬픔이 일상에 스며든 상태를 형상화함
- (다) 방을 슬픔이 기다리는 곳으로 설정해 감정과의 공존을 드러냄

등장인물

- (나) 화자: 세상에서 돌아와 좁은 방에서 불을 끄고 하루의 울분을 삭이는 인물
- (나) 창·밖의 세상: 방 안과 똑같이 어둡고 비에 젖어 있는,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 (다) 화자: 슬픔에게 깨워져 하루를 시작하고, 그 시중을 받으면서도 밥은 먹고 싶지 않은 인물
- (다) 슬픔: 화자를 깨우고 노래해 주고 일으켜 세우며 온종일 곁을 떠나지 않는 의인화된 감정

구성

- (나) 1연: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며 낮(세상)과 단절함
- (나) 2연: 창밖을 내다보나 방 안처럼 어두운 세상과 비에 젖은 길을 확인함
- (나) 3연: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사상이 익어 감을 느낌
- (다) 1연: 새벽마다 점점 일찍 찾아오는 슬픔이 화자를 깨우고 지난날을 노래해 줌
- (다) 2연: 슬픔이 일으켜 세우고 시중을 들며, 외출에서 돌아온 방에서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전체 줄거리

(가)는 시에서 '방'이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를 분리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내면을 돌아보고 교류하게 하는 조건이며, 창을 통해 제한적으로 외부와 이어 지기도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나)의 화자는 세상에서 돌아오듯 좁은 방에 들어와 낮의 연장인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지만 밖 역시 방 안처럼 어둡고 지나온 길은 비에 젖어 있다. 씻을 길 없는 울분 속에 눈을 감자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사상이 능금처럼 익어 간다. (다)의 화자는 매일 새벽 점점 이른 시간에 찾아와 자신을 깨우는 슬픔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 슬픔은 지난날을 노래해 주고 화자를 일으켜 창문을 열고 책을 펼쳐 주며 식사를 권하지만 화자는 그 밥을 먹고 싶지 않다. 외출할 때는 슬픔이 눈에 띄지 않기도 하나, 방으로 돌아갈 때면 그곳에 슬픔이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음을 화자는 안다.